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3, 유신론적 주장, 2부, 목적 론적 주장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유신론적 논증, 파트 2,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미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논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른 유신론적 주장, 즉 목적론적 주장, 즉 설계로부터의
주장과 정신 또는 의식으로부터의 주장에 주의를 돌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론적 주장, 즉 설계로부터의 주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명백한 설계에서 초자연적 설계자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목적론적
주장은 어근인 텔로스(telos)가 목적, 목표 또는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이 아이디어는 자연에는 모든 종류의 유정한 존재와 무정한 존재와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세상이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춘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을 목적론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설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양한 다른 것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 목적, 복잡성, 복잡성, 아름다움, 정보 내의
통일성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형태로 된 디자인의 예를 들자면, 저는 수십 년 전에 눈 검사를 받았고,
이 검안사와 인간의 눈의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인간의 눈의 수정체에는 우리의 시야가 흐릿해지지 않기 위해 꼭 몇 마이크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7개의 조직 층이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드럽다면, 아주 약간이라도, 우리는 선명한 시야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의 수정체에서 그 다른 조직 층의 순서에 관해서는, 그것들은 기능하기 위해 꼭 그렇게 배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그것은 질서의 형태로 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질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 월경 주기, 수면 주기, 그리고 건강하고 기능적인 삶을 사는 데 중요한 다른 형태의 시간적 주기와 같은 다양한 주기, 생물학적 리듬 또는 주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서의 디자인의 관점에서, 유신론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체장의 목적이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폐의 목적, 혈액을 펌핑하는 심장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다른 장기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디자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이 진행됩니다.

윌리엄 팰리는 18세기 후반에 유명해진 자연신학자로, 시계 비유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주장은 우리가 시계나 시계와 같은 인간의 유물에서 특정한 디자인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 엔지니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그것들이 매우 잘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팰리는 세상이 시계나 인간이 만든 장치와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단지 시계나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능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본적인 주장은 시계와 같은 인간의 유물은 질서, 복잡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부분들이 상호 협력합니다.

그것은 목적을 향해, 이 경우 우리를 위해 시간을 유지하는 목적을 향해 작동합니다. 그것은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졌고, 세상은 두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서, 복잡성, 통일성, 그리고 부분들의 상호 협력을 보여주며 목적을 향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아마도 지적인 설계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이 이후로 널리 비판받아 온 기본적인 주장이며, 유명한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도 포함됩니다. 그는 회의론자였으며 팔레이가 1801년경에 쓴 글에서 이 주장을 발표하기도 전에 비판했습니다. 흄은 25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는 이미 이 주장을 매우 잘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주장이지만, 흄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명백한 설계에 대한 다른 자연적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는 시계와 세상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이 시계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시간 측정 장치를 만들고, 설계하고, 만드는 것을 보았지만, 신이 우주를 만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거나 적어도 Nova의 그 에피소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적론적 논증의 그 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결함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연 법칙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발전하면서 미세 조정 논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설계 논증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우주가 생명의 가능성을 위해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생물 설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또한 생물의 설계와 생화학이나 유전학에 관한 미세 조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미세 조정 논증의 이 버전의 초점은 무생물의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적 우주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위해 수렴하는 모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 콜린스는 이 미세 조정 논증의 가장 저명한 옹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주장에 대한 버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우주론자

, 모든 물리학자가 우주가 생명에 필요한 물리적 매개변수의 정확한 균형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미세 조정되었다고 말할 것이라는 관찰입니다.

어떤 우주에서든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이 가능하려면 그 우주에 특정한 안정성과 복잡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력의 역제곱 법칙과 같은 법칙에 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물체는 다른 물체에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끌립니다. 그 법칙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보가드로 상수, 강력과 약력, 그리고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수십 가지 다른 법칙이 있어야 생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다시피, 아주 사소한 편차가 생명을 불가능하게 만들 지점까지 조정되었습니다. 빅뱅 팽창 속도는 또 다른 것입니다. 빅뱅에서 우주는 팽창한 속도로만 팽창했어야 했습니다. 팽창 속도가 더 느렸다면 스스로 붕괴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우주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장되었다면, 그것은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물질은 너무 확산되었을 것이고, 생명을 지탱하는 별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빅뱅의 확장 속도는 정확히 그대로이므로 생명의 가능성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허용할 우주를 갖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것은 이러한 물리적 매개변수를 가진 우주에서 생명의 실제 창조나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콜린스가 지적하는 또 다른 핵심 가정은 확인의 원리입니다.

두 개의 경쟁 가설을 고려할 때, 관찰은 관찰이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가장 가능성이 낮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경쟁하는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신론으로, 우주의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신론적 관점입니다. 지적 설계자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측면에서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가설 중 어느 것이 가장 잘 확인될까요? 따라서 콜린스의 버전에 따르면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유신론을 감안할 때 우주의 미세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겸손한 주장이 아닙니까?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신론자로서, 신의 본성과 존재를 감안할 때, 우리는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를 기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장을 위해 우주의 미세 조정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둘째, 우주의 미세 조정은 매우 있을 법하지 않으며, 이는 무신론적 단일 우주 가설에 따른 과소평가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미세 조정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무한히 작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결론은 미세 조정 데이터는 유신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신의 존재에 대한 잠재적으로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장이고, 콜린스는 이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고려합니다.

하나는 아마도 더 근본적인 법칙, 하나의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특정 자연 법칙이 정확히 그대로일 것이라고 지시하거나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들은 정확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지적인 설계자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더 근본적인 자연 법칙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콜린스의 답변은 그것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법칙이 그런 매개변수를 가질 것이라고 지시하는 그런 더 근본적인 법칙을 믿을 만한 독립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방편 논증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믿음을 반박하는 특정 제안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더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이 호소는 실제로 문제를 한 단계 뒤로 밀어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모든 특정 법칙이 정확히 그대로, 생명의 가능성에 딱 맞게 설정되도록 보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자연 법칙이 있다면, 우리는 글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자연 법칙이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흠, 미세 조정된 우주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지적 설계를 그 자체로 암시하지 않나요?라고 묻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우리가 아는 한, 다른 형태의 생명이 다른 물리적 매개변수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이 있는 이 우주에서의 생명뿐입니다.

아마도 매우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콜린스의 대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의 복잡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신진대사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복잡성과 안정성, 그리고 통일성을 요구합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전체 개념이 그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에 근거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그렇게 조직된 복잡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형태의

대사 시스템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복잡하지만 또한 통합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자연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론은 많은 우주 가설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어쩌면 수조, 수천조 개의 우주를 토해내는 어떤 심오한 형이상학적 우주 생성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된 무수한 우주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충분한 우주를 얻으면 마치 수세기, 수천억 년 동안 타자기 방에 있는 속담 속의 침팬지와 같을 것입니다. 결국 그중 하나가 셰익스피어 희곡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무수한 우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가능성에 딱 맞는 모든 법칙의 무작위적 수렴에 대한 확률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우주 또는 다중 우주 가설에 대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콜린스의 대답은 다른 모든 것이 동등하고, 우리는 항상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 가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주 생성기나 다른 수많은 대체 우주의 존재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평행 우주나 다중 우주를 전제로 하는 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TV 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여행 영화와 책처럼 미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모두 매우 재미있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지난주에 H. G. 웰스의 책, 보이지 않는 남자를 읽었습니다. 전에는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기술과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위험에 대한 온갖 교훈이 가득하고, 이 투명성 사례에서 관련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허구화된 설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중 우주에서의 투명성과 시간 여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중 우주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는 물론 과학적 증거도 없다.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것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 설계,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세 조정으로 인해 설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훼손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반박을 내놓으려면 경험적, 어떤 독립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그것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 임시 가설은 특정 이론을 반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안이나 이론이며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다중 우주 이론에 적용됩니다. 그것이 우리 우주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언급할 때, 과학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에서 과학이나 과학적 이론화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과학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은 그것이 탐구, 물리적 우주, 우리의 우주에 대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우주를 넘어서는 것들을 제안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다중 우주 이론이 그 자체로 일종의 초자연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맥락에서 그것은 초자연적 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반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할 것입니다.

콜린스는 또한 다중 우주 가설이 설계 문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고 지적합니다. 우주 생성기가 있다면, 수조, 수조, 수조 개의 우주를 모두 생성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그것을 설정했을까? 어떻게 배열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주와 무수한 우주를 생성하는 매우 인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뛰어나고 현명하며 강력한 초자연적 힘을 암시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의 형태로 설계에 대한 논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유신론적 논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논증입니다. 이것은 유신론적 증명 또는 유신론적 논증으로, 의식, 특히 인간의 의식의 사실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원인인 신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또한 이성으로부터의 논증, 때로는 인류학적 논증이라고도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경쟁적인 견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과 다른 유신론자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몸과 영혼, 즉 영이나 마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는 영, 혼,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이원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과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물리주의가 있습니다. 물리주의자, 유물론자, 자연주의자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리학의 관점에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이나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물리적 상태는 다른 물리적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그저 물질의 덩어리일 뿐이에요. 다양한 화학적 배열과 에너지 상태.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는 물질적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물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원론, 정신-신체 이원론, 물리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신체 이원론에 대한 표준적인 주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 주장이 인식이나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물질적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인식하기 시작할까요? 인간과 다른

유기체가 지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적 설명에 도전합니다. 주관성으로부터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주관적 성격, 경험의 일인칭적 특성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3인칭 묘사로는 포착할 수 없는 1인칭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약 50년 전, 토마스 나겔이라는 자연주의 철학자가 “박쥐가 되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쥐가 반향정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각 능력, 감각적 용량으로, 당신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박쥐는 가지고 있고, 돌고래와 돌고래, 고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래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각으로, 기본적으로 소리의 펄스를 방출하고, 그 소리는 주변 환경에 있는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고래에게 일종의 내부 정신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3인칭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반향정위에 대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향정위의 감각적 능력에 대해 아무리 잘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박쥐나 돌고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런 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네이글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요점은 의식이 그런 종류의 환원 불가능한 주관성, 환원 불가능한 일인칭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주의자들이 이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대한 3인칭 설명, 우리 몸과 뇌에 대한 3인칭 설명을 제공하는 것뿐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의식적 경험의 이 일인칭 특성을 놓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주의에 대한 심각한 한계는 우리에게 대한 물리적 측면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성에서 비롯된 주장이 있는데, 정신 상태가 특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생각은 많은 경우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에 대해 생각할 때, 제 생각은 마치 저를 초월하여 지금 워싱턴 DC 어딘가에 있는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회색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의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임사 체험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임사 체험은 그 자체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임사 체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죽고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평평한 EEG 또는 뇌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별 가능한 뇌 활동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몇 분 후에 그들은 부활하고 돌아와서 온갖 풍부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영혼이 병원이나 집을 넘어 여행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보거나 들은 것을 보고합니다.

이는 나중에 많은 책과 영화를 탄생시킨 매혹적인 이야기에 대한 조사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문화적 현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경험 중 하나라도 진짜이고 실제적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신-신체 이원론을 가리킬 것이기 때문에, 정신 철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NDE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일종의 이원론적 관점을 확증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주장은 정신-신체 이원론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물리적 또는 물질적 용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측면, 영혼 또는 초자연적 정신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는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신이나 어떤 종류의 창조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 우리는 의식, 지각, 주관성, 의도성과 같은 정신적 특성을 보이고 , 우리의 정신적 특징은 순전히 물리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초자연적인 원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킨 비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 자체로 정신이거나 우리 자신의 정신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매우 강력하고 지적인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으로부터의 주장입니다. 마음-몸 이원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마음으로부터의 주장에 대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초자연적 마음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각은 과학적으로 평가되는 우리 경험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적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설명으로 초자연적 존재에 호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신 철학자이자 자연주의자인 대니얼 데닛은 이것을 물리주의적 관점에 대한 주장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상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응은 증거적으로 정당화된 추론을 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합리적인 성공입니다.

의도성과 주관성, 기본적 인식, NDE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감안할 때, 그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둘째, 초자연적 정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일부 대상은 비과학적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추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필연적으로 철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신학적으로 추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론이 주로 철학적이고 주로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원론자와 유신론자에게 문제가 될까요? 글썄요, 해결책이 인간 의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전부인 듯합니다.

인간의 의식을 과학적, 따라서 물리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글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하며, 바로 이러한 다른 종류의 관찰, 다시 말해 일부는 철학적 관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설명이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주의를 선호하는 문제를 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사건과 현상에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컴의 면도날 또는 검소함의 원리에 호소하는 반대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 두 가지 경쟁 설명 중 더 간단한 것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을 물질, 물리학의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것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면 더 간단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컴의 면도날은 충분하고 좋은 이유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체를 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간단한 설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것들이 여기에서 동등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물리주의적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의식에 대한 너무 많은 현상, 너무 많은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불평등화이며,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또는 유신론자는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초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제 주장에 대한 많은 반대와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유신론적 논증, 파트 2, 목적론적 논증입니다.